



한전 익산지사, 소외계층 150세대에 꾸러미 전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국전력 익산지사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나섰다. 복지의 그늘에 놓인 이웃들이 홀로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한전 익산지사 사회봉사단은 정성 가득한 '풍요로운 한가위 꾸러미'를 마련해 150세대에 전달했다.

30일 이른 아침, 익산지사 직원들과 부속종합복지관 봉사단은 한지리에 모여 송편과 전, 명절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다. 손수 만든 음식과 영양제가 담긴 꾸러미는 단순한 물품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선물이 되어 각 가정에 전해졌다. 봉사자들은 문을 두드리며 안부를 묻고, 한가위 인사를 건네며 짧지만 따뜻한 만남을 이어갔다.

김건중 지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소외된 이웃들의 삶에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고 전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작은 정성이 모여, 올 추석 익산 지역 곳곳에는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한 달빛이 퍼지고 있다. /오상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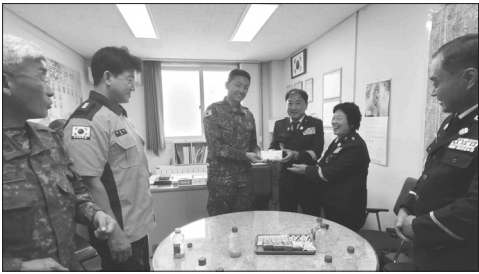
전북교총, 국민연금연구원과 상호협력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지난 30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연구원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교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 미래세대 대상 연금 이해 교육을 함께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민연금제도 관련 학술연구와 교육과정 상호 협력 △교원 및 학생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국민연금 정책 설명 및 홍보 활동 △대내외 행사 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교직원뿐 아니라 미래세대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알기 쉽게 전하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추석 명절 맞아 군 장병 위로

남원의용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향토부대인 육군 7733부대 3대대를 방문해 2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전달하며 장병들을 위로했다.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2018년 3대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재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공은태·곽정화 연합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부대 간의 뜻깊은 자매결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상도푸드, 고향 김제 금구면에 따뜻한 나눔 실천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0일 국내 대표 식품기업 (주)상도푸드(대표 송기봉)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400만원 상당의 광문치킨 65박스를 전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송기봉 상도푸드 대표는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상도푸드 송기봉 대표는 금구면 출향인으로서, 고향 사랑과 지역사회 환원의 가치를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사 내방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소외 이웃에 사랑의 꾸러미 전해 ‘훈훈’

무주 부남면 지사협, 추석 명절 맞아 지역 내 40가구에 먹거리 전달

무주군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강명관, 민간위원장 송영곤) 회원들이 9월 25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석맞이 사랑의 꾸러미 40개(2백만원 상당)를 전달해 훈훈함을 전했다.

꾸러미에는 사인머스켓과 계란, 김, 사골곰탕 등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10종이 담겼으며 회원들이 직접 대상 가구에 전달했다.

송영곤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명절이 되면 소외된 이웃들은 더 외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꾸러미로 전달하게 된 것"이라며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과 이웃을 함께 아우르는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UP 건강요료 결연사업' 추진, 노후주택 개선 및 청소 등 맞춤형 복지사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30일에는 부남면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행복 민리길' 행사가 열려 호응을 얻었다.

부남면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열린 것으로,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의료, 문화, 상담 등)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1백여 명의 주민들은 현장에서 '편백 팔찌 만들기'와 '건식족욕 온열 치유', '귀반사', '서금 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주민들은 "마을로 직접 와서 여러 체험을 하게 해줘서 너무 즐거웠다"라며 "특히 건강 관련 프로그램은 도움도 되고 기회가 된다면 또 해보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무주군자원봉사센터, 무주군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무주군어린이집연합회, 무주군수어통역센터,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등 10개 기관에서 5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은행 후원 ‘재즈 앳 더 뱅크: 가을’…한옥마을 배경 속 성료

전주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이 가을밤을 수놓는 재즈 선율과 어우러지며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음악적 향연을 선사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은 지난 27일, KBS FM '재즈수첩' 진행자이자 재즈 칼럼니스트인 황덕호와 함께하는 투프탑 재즈 파티 '재즈 앳 더 뱅크: 가을'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주 한옥마을을 내려다보는 투프탑 공간에서 진행돼, 전통성당 첨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 국내 정상급 재즈 뮤지션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공연의 문을 연 1부 무대는 '찰리정 트리오+난아진'이 맡았다. 미국에서 재즈를 수학하고 전설적 기타리스트 테드 그린에게 사사한 찰리정은 특유의 깊이 있는 연주로 무대를 이끌었다. 오사가 블루스, 상도 블루스 등 친숙한 재즈 명곡을 선보이며 150여 명의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2부 무대에서는 독창적인 음악성을 지닌 '김주환 밴드'가 무대를 이어갔다. 11장의 정규 음반을 발매하며 한



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보컬 음반 부문에 세 차례나 이름을 올린 김주환은 이번 공연에서 보컬, 트럼펫, 색소폰,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6인조 편성을 선보였다. 한층 풍성하고 감각적인 사운드로 투프탑을 가득 채운 그는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한편, 전주 JB문화공간은 앞으로도 다채로운 장르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에게 색다른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문화공간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상근 기자

체류형 관광 시동… 완주 삼례 ‘자전거 대여소’ 개소

완주군이 삼례 '쉬어가삼례:J' 유희공간을 친환경 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탈바꿈 시키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위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지난 30일 완주군은 삼례 '쉬어가삼례:J'에서 'e-BIKE 자전거 대여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군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선을 보인 자전거 대여소는 유희공간을 활용해 지역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재탄생시켜 주목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됐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자전거 대여소는 삼례역에 내린 관광객 및 완주군민들에게 근대문화유산인 삼례문화예술촌을 지나 만경강 자전거길로 나아가는 '친환경 생태관광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버려진 공간을 재생해 완주 관광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고, 군민 여러분과 함께 그 출발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23일 무주농어촌종합지원센터서 '공동체 한마당'

무주군민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 '2025 공동체 한마당'이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무주농어촌종합지원센터(무주군 적상면 서창로 89)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화합을 다지는 행사다.

올해 한마당은 공연과 체험, 전시, 마을대항 경기가 어우러져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 행사는 식전공연으



로 시작되어 매우 기쁘다"며 "오늘 문을 연 자전거 대여소를 시작으로 완주를 찾는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자전거 대여소 개소를 통해 기존의 예코레일열차 등 특화관광상품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완주=열재복 기자

로 문을 열고 이어서 다양한 동아리팀이 무대에 오르는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마을대항 고무신 던지기 대회는 큰 볼거리다. 1~3등 상금은 물론 응원상까지 마련돼 있어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장 곳곳에는 전시작품, 공예체험 등 어린이와 가족, 시니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가 준비돼 있다. 또한 원로지구센터 프로그램 참여 교육생들이 준비한 작품전시도 만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박용근 도의원, 한반도 통일공헌 지방의정분야 수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진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지방의정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은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와 (사)우리민족교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대상 메달과 상패는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과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탄피 등을 녹여 제작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박용근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지방 의정 현장에서부터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민과 함께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 개발 부사장을 맡고 있는 래리 헨셀(Larry Henshel) 등 국내외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개발공사·전주대 홍보 협업 프로젝트 성료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지난 30일 전주대학교에서 '2025 새만금 버디버디' 성과공유회 및 시상식을 열고, 올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버디버디'는 지역 및 Z세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참신한 시각을 담은 홍보 콘텐츠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4년 부터 공사가 추진해 온 청년 참여형 홍보 협업 프로젝트이다.

올해는 전주대학교 웹툰화콘텐츠학과 학생 40여 명이 참여해 '새만금, Z세대와 함께 그리다'라는 주제로 홍보 웹툰을 제작했다. 사전심사를 통해 우수작이 선정됐으며, 성과공유회 현장에서 공사사장상이 수여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학생들의 작품을 직접 설명하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높은 완성도로 호응을 받았다. 또한 참여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돼 현장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이만호 기자

재현산업, 남원 금동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주)재현산업(대표 백미성)에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10가구에 각 10만 원씩 전달될 예정이며, 이들은 행정복지센터가 평소 '1일 1가주 소통행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복지사각지대 가구들이다.

백미성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김봉래 동장은 "복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뜻깊다"라며 "(주)재현산업의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죽산면 지사협, 추석맞이 사랑의 밀반찬 전달

김제시 죽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영석)가 지난 30일 추석을 맞아 정성껏 준비한 밀반찬과 과일을 관내 50세대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특화사업은 죽산면과 면 협의체가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며 직접 밀반찬을 만들어 대상자 가정에 전달, 이웃과 유대 관계 형성을 통해 정기적 안부 확인 및 취약계층 돌봄 기반 마련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모여 돼지고기장조림 등 밀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면서 따뜻한 소통과 함께 건강을 기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